내가 살아온 이야기

박정희 '유신' 독재 아래 산 이야기

강만길

강만길 mgkang@sangji.ac.kr | ● 1975년 고려대 문학박사 취득. 1971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1980년 해직되었다가 84년에 복직. 1988년 제3회 심산학술상 수상. 199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이사장. 1999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년퇴임. 단재상 수상. 청명문화재단 이사장. 2000년 계간《내일을 여는 역사》 발행. 제2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2001년부터 현재까지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2002년 제6회 만해 학술상 수상. ● 저서로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1978), 『한국민족운동사론』(1985),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1987),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1991), 『한국근대사』(1994), 『한국현대사』(1994), 『20세기 우리역사』(2000) 등 다수가 있다.

중세사 울타리를 넘어서게 된 이야기

명색이 역사학자로 칠십 평생을 살아왔지만, 가혹한 세상에 살면서 용기가 없어 일기를 쓸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살아온 이야기를 쓰려 해도 '사료'가 없어 못 쓰는 것이 안타깝다. 일기가 있었다면 내가 살아온 세월과 민족사 및 세계사의 흐름을 연결시켜 꽤 괜찮은 책을 한 권 쓸 만하다는 아쉬운 생각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연구실이나 서재가 언제 수색 당할지 모르는 세상에 살면서 일기를 못 쓰다가 7·4 공동성명 후에는 이제는 일기를 쓸 만한 때가 되었는가 하고 한 때 쓰기 시작했으나 역시 때가 아니다 하고 없애 버리고 말았으니 아쉬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제법 오래 살았다 해서 살아온 이야기를 쓰라 하니 '유신'이라는 역사의 뒷걸음에 치였던 때의 이야기나 해 볼까 한다.

평생 역사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며 살아왔으나, 왜 역사학을 전공하게 되었는가 하고 물으면 영 신통한 답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깝기조차 하다. 그러면서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학입학원서를 쓸 때 서슴없이 사학과를 택한 것은 분명하다. 다소 그럴듯한 답을 해야겠다고 생각될 때는 감수성이 예민한 십대 말기에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인지 모른다고 하기도 한다. 열일곱 살 때 전쟁이 나고 열아홉 살 때, 즉 전쟁이 한창일 때 대학 사학과에 들어갔으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비극적 민족내전이 우리 역사학을 전공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어렵다.

어떻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정치학과가 제일 인기 있었고, 정원이 20명이었다고 기억되는 사학과 입학생 중 정말 역사학을 전공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은 글쎄 한두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다. 대구에 피난 가 있던 가교사에서 시작된 대학생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부에만은 재미를 붙일 수 있었다. 그래서 비교적 일찍 역사학에 눈떴던 것 같고, 이미 여러 번 썼지만 한때는 우리 고대 사회의 노비제도를 연구하리라 마음먹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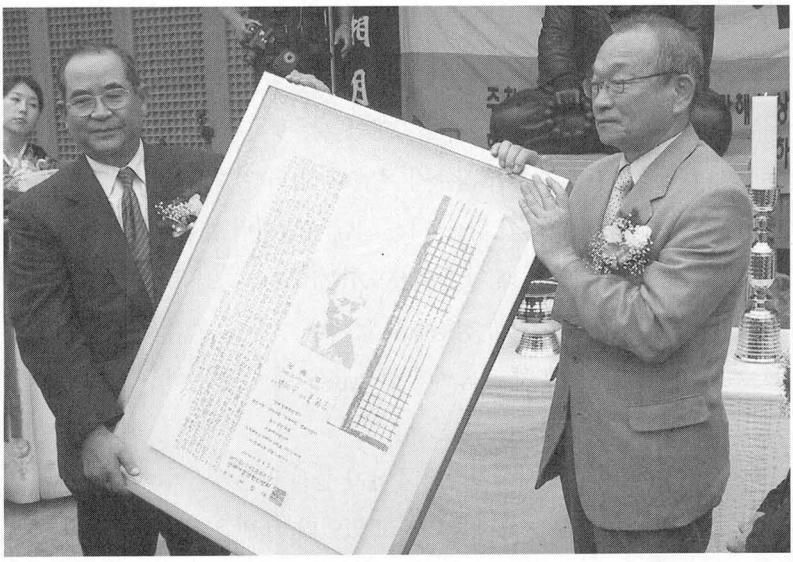
했었다. 내가 쓴 글이 처음으로 활자화된 것도 학부 3학년 때 쓴 고대사 관계 글이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을 할 때는 당시 '근대사' 라 불렀던 조선왕조 시대의 상공업사 문제를 졸업논문으로 쓰게 되었다. 4 · 19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청사가 중앙청 안에 있던, 은사 신석호 선생님이 주관하시던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할 때 겪었다. 일부러 청와대 앞이 보이는 경복궁 뒤곁의 신무문까지 가서 소방차를 빼앗아 타고 돌진하던 대학생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현장도 봤고,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있던 경찰 무기고 앞에서 총 맞아 죽은 학생의 시체를 흰 가운 입은 의과대학생들이 메고 행진하는 장면도 보았으며, 자유당 정권의 고관을 지낸 유명한 역사학자가 데모대를 피해서 경복궁 담을 넘어 도망가는 모습도 봤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의 역사 위에 남을 정도의 사건이 되리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고, 조선왕조실록의 색인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라 데모대의 '공격' 으로 그 많은 색인카드가 흐트러질까 더 걱정했다고 기억된다.

그러나 4월 26일인가 교수 데모가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이 나왔을 때는 혁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4 · 19 주동세력이 정권을 쥐고 4 · 19 정신을 구현할 상황이 못 되었고 그래서 혁명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다.

5 · 16 때도 역시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올챙이 역사학도이면서도 4 · 19 이후 약 1년간 계속된 데모의 홍수와 '혼란' 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과정이라 이해하지 못하고, 보수언론들이 가리키는 대로 혼란으로만 생각했던 탓인지, 군사쿠데타 초기에는 그 반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역사적 안목으로 바로 보기란 역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제6회 만해학술상 수상 장면(2002년)

당시로서는 비교적 일찍 모교의 전임교원이 된 후에도 계속 조선왕조 시대의 상공업사를 연구했고, 박사학위논문 제목도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구실만을 지키며 우리 전근대사 연구에 파묻혀 사는 단순한 역사학 전공자에 지나지 않았다. 역사학을 전공하면서도 역사적 현실과는 완전히 유리된 채 그 뒤꼍에 앉아 안일한 생활에 빠져 있었다고 하겠다.

훗날 저 무서운 남영동의 치안국 대공분실에 잡혀갔을 때, 그 요원이 내 고향에 파견되어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뒤지게 되지만, 내 주변에는 좌익운동을 했거나 월북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비록 중세사였지만 역사공부를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천성이 모질지 못하고 평화주의자라 자처하며 살아왔기 때문인지, 어떻든 중학생 때부터 그 엄청난 반공교육 · 반북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대학생 때쯤부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나에게 7 · 4 남북공동성명 발표는

정말 꿈같은 일이었다.

교수휴게실에서 만발했던 화제도 그러했지만 북녘대표들이 서울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말 통일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강의실에서까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박정희 정권이 종신집권체제 '유신'을 하기 위한, 다른 글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멍석깔기'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른다. '유신' 때의 계엄령 아래에서는 군인들이 학교를 점령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 감시가 심해서 동료교수들과 만나는 일조차 조심해야 했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기도 했다.

'유신' 이전까지는 역사학자라면 주註가 붙지 않은 글, 이른바 잡문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은 교수휴게실에서 어느 선배 교수가 "요즈음 우리 대학에서는 괜찮은 논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잡문쟁이가 나오지 않아 섭섭하단 말인가 싶어 속으로 개탄한 일도 있었다. 그러던 내가 '유신' 이후부터 서슴없이 잡문을 쓰기 시작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급격하고 심한 변신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데 조선왕조 시대의 상인이 어떻게 살았으면 무엇하고 수공업자가 무엇을 했으면 어쨌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세상이 이렇게 반역사적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역사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역사학은 본래 현실과 유리될 수밖에 없는 학문인가, 그러고도 민족사회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일제강점 시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옛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지난날의 역사학과 민족분단의 현실을 외면하는 역사학이 다를 게 무엇인가, 역사학은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단순한 호고학好古學이라면 학문이 아니라 재미로 하는 취미 같은 것일 뿐이지 않는가, 야담이나 사화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조금 뒷날의 일이지만 일본제국주의 성노예 즉 종군위안부 문제가 유엔과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었지만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논문 한 편 나오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런 역사학의 풍토라 군사독재 정권이 7·4 남북공동성명을 '유신' 으로 가기 위한 속임수로 써먹건 말건 일말의 반응이 있을 리 없었고, 그것을 보며 내가 하고 있는 역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역사학의 현재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단순히 해방 후의 시대라 하지 말고 분단시대라 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의식이 생길 것이다. 우리 역사학은 식민사학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사실 식민사학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하지만—분단시대 유지에 봉사한 역사학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 시대의 민족사학이 식민지화 과정을 말하고 민족해방투쟁을 말한 것처럼, 분단시대의 민족사학은 민족분단의 원인을 밝히고 분단극복을 위한 방향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역사학이 역사의 뒤꼍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앞마당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 나오게 된 이야기

'유신' 독재체제 아래에서 제일 먼저 현실 문제를 다룬 글은 1974년에 박정희 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한 글이었다고 기억된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바로 군사독재정권의 횡포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역사학계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어느 역사학회도 반대성명 한 장 내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며칠 후 당시 문교부의 역사담당 편수관이 내게 와서 새로 만들 국정 국사교과서의 조선왕조 부분을 쓰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국정 국사

교과서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학계에는 국정 국사교과서를 집필할 학자가 전혀 없을 것이며, 그래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 말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당시 내가 간사로 참여하고 있던 역사학회의 대표가 국정교과서 집필자가 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 간사회를 소집하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후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운동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당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창작과비평사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특집을 하겠다 하기에 적극 참가하여 글을 쓴 것이다.

백낙청 교수가 주동해서 발간하던 계간지《창작과 비평》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장준하 선생이《사상계》를 다시 간행한다 해서 써 준 글이 사상계에는 못 나오고 창비에 실리게 되면서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창비논객'의 한 사람에 끼이게 된 것은 1973년에 쓴「유길준의 한반도 중립화론」부터라 생각된다.

이 글도 본래 같은 학교에 있던 어느 교수의 청탁으로 다른 학술지에 싣기 위해 쓴 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름을 밝히면 누구나 알 만한, 그 학술지를 주관하던 학자가 중립론 같은 글을 실을 수 없다 하고 퇴짜를 놓아서《창작과 비평》에 싣게 된 것이다. 1970년대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다.

다른 글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분단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된 것은 1974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8·15 이후의 시대를 그냥 해방 후의 시대라 인식하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창작과비평사로부터 새로 나온 천관우 선생의 사론집『한국사의 재발견』에 대한 서평을 청탁받고, 그 분의 사론이 전반적으로 분단시대적 역사인식에 한정되었음을 지적하고 분단극복사론을 수립해 가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단시대로 인식해야 통일의지가 커진다는 뜻에서 '분단시대'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처

음에는 반공주의적 역사인식으로 표현했다가 고심 끝에 분단시대적 역사인식으로 바꾸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 본분이라 해도 괜찮을 직업군인 출신들이 독재하던 '유신' 암흑기에 조금은 간 큰 짓을 한 셈인데, 분단시대라는 용어가 학계의 시민권을 확보하면서 보편적 용어가 되어 간 과정이 곧 우리 근대학문사 및 민족사의 발전과정의 일단이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그 외에도 계속 「민족사학론의 반성」, 「국사학의 현재성 부재문제」, 「분단시대 사학의 성격」 등의 글을 쓰게 되었고, 창작과비평사의 요구로 그 글들을 모아서 1978년에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란 이름으로 처음 '잡문집'을 내게 되었다.

으레 그러기 마련이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읽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서툴기조차 한 글들인데도 그때로서는 반응이 좋았고, '유신' 시대인데도 대학생의 필독서가 되었다느니 어느 대학에서는 금서가 되었다느니 하는 말들을 들었다. 특히 1980년대를 통해 민주화운동을 하고 감옥에 갔다 온 젊은이들이 "책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결국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쓴 책임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역시 '유신' 시대 이야기에 한정한다.

국민교육헌장 반대운동에 휘말렸던 이야기

군사독재의 뒷걸음질에 치였던 이야기를 몇 곳에 썼고 그 글들이 책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지만, 남들도 모두 겪은 일인데 싶어 상세히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또 살아온 이야기를 쓰라는 청탁을 받고 보니 이왕이면 상세히 밝혀서 군사독재체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한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국민교육헌장 반대운동에 휩쓸려 저 무서운 남산의 중앙정보부 취조실에 끌려갔던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한다.

아마 1978년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직전이 아닌가 기억된다. 백낙청 교수였는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전남대학교 송기숙 교수가 중심이 되어 국민교육헌장 반대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도 연세대학교의 성내운 교수 등이 동참하기로 했으니 서명하지 않겠는가 하기에 쉽게 동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서명을 미처 하지도 않은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나서는데 건장한 체격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잠깐 가자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가 보면 안다는 식이었고 '유신' 때라 감히 따라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세대는 일제 시대에 초등교육을 받았고 소학교 저학년 때부터 일본의 이른바 '교육칙어' 라는 것을 외우느라 애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소학교 저학년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만큼 어려운 일본어 문장으로 된 '칙어' 라는 것을 달달 외워야 하는 일이 여간 고생스럽지 않았다. 일제 시대 사범교육을 받은 소학교 교원으로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칙어' 암송을 강요했었을 박정희 씨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유신' 독재체제로 가면서 '교육칙어' 의 재판이라 할 국민교육헌장이란 것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암송을 강요했으니 역사가 50년 이상 뒷걸음친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욱 기막힌 일을 경험했다. 내가 있던 대학에 박정희 씨와 사범학교 동기생이었던 교수가 있었고 군인 출신이 아니면서도 그는 박 정권에 협력하고 있었다. 하루는 교수휴게실에서 잡담 끝에 뜻도 모르는 '교육칙어' 를 외웠던 옛일을 말하면서 국민교육헌장 강제암송을 비판했다. 그랬더니 그 교수는 설령 뜻을 모르더라도 '교육칙어' 나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는 것이 해롭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일본제국주의 교육을 받고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교육을 했던 교원들을 해방 후 숙청하기는 고사하고 재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 일선에서 근무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수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

서 민주주의 시대에 '신교육칙어'가 나와도 교육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뿐이었는데 송기숙 교수 등이 반기를 든 것이고, 나도 기꺼이 동참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자동차가 남산 기슭의 어느 큰 회색 철문 안으로 들어가서야 말로만 듣던 중앙정보부 취조실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머리를 바삐 굴려 봤지만 왜 끌려오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짐작할 수 없었다. 신분증 일체를 빼앗기고 지하실의 한 방으로 끌려갔다. 삿갓 없는 전구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한쪽 옆에 있는 철제 책상에 의자가 마주 놓여 있었으며 야전용이 아니었던가 기억되는데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뒤에 그가 밝혀서 알았지만 서울의 어느 괜찮은 사립대학 정치학과인가를 나왔다는 젊은 취조관은 대뜸 송기숙 교수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때서야 국민교육헌장 반대문제임을 알아차렸고 송 교수와는 이름만 들었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대답했다. 소설가인 송기숙 교수는 이름이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만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백낙청 교수와 안병직 교수 등 서울에서 동참하기로 한 사람이 여럿이라고 들었는데 이들도 잡혀 왔는지가 궁금했고, 만약 그들이 잡히지 않았다면 끝까지 부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방 기미를 알고자 애를 썼다.

여름이고 냉방장치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는 지하 취조실이라 너무 더웠다. 문을 열어 놓고 취조를 했기 때문에 옆방 동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옆방에는 어느 여자 분이 잡혀 와서 취조를 받는 것 같았다. 송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니까 취조 방향을 돌려 나의 생각이나 동향을 알아보려 했는지 같은 국사학자인 천관우 선생과 얼마나 친하냐—그때만 해도 천관우 선생은 거물급 반체제 인사였다—등을 묻다가 이효재 교수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때 비로소 옆방에서 취조받는 여자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효재 교수임을 눈치챌 수 있었다.

세월이 너무 지나서 상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하루종일 취조를 받으

상지대 민주페스티벌 장면(2004년 3월)

면서 느낀 것은—중앙정보부에서 취조받다가 목숨을 잃은 대학교수도 있었지만—지식인에 대한 그들의 취조 방법이 너무도 강압적이었다는 것과, 어릴 때 일이지만 일제 말기의 분위기가 그곳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느낌이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일제 말기에 사범학교 출신의 소학교 교원 생활과 군인장교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그의 '유신' 통치 시대는 바로 일제 말기적 공포 분위기 그대로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역사를 그만큼 되돌려 놓은 것이다.

젊은 취조관 두 사람이 교대로 하루종일 제 마음대로 사람을 들볶더니 통행금지 직전에 가서야 지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 중년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는 꽤 점잔을 빼면서 나가서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일체 말하지 말 것이며, 다시 소환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귀가시켜 주었다. 뒤에 안 일이지만 광주에서 잡힌 송기숙 교수가 나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면 일본제국주의의 '교육칙어' 이념을 교육 현장에 실현하기 위

한 최일선 요원이 되기 위해 사범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해방된 나라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어 신판 '교육칙어'라 할 반시대적 산물인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강제로 외우게 한 그 일 하나에 우리 현대사의 비극성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며, '유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좋은 근거의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사회의 정권은 대개 민족해방운동세력에 의해 성립되게 마련이며 그러기 위해서는—대한민국임시정부도 그런 주장을 폈지만—해방이 곧 혁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방이 혁명이 되지 못했고 4·19 역시 혁명이 되지 못한 채 쿠데타로 박정희 군사정권이 성립됨으로써 해방된 이 땅이 일제 시대의 연장처럼 되고 말았으며, '유신' 시대가 특히 그러했다고 할 수 있다.

'유신' 시대를 함께 산 지식인들의 이야기

우리 세대는 이승만 정권이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꾀했다가 결국 4·19를 맞아 몰락해 가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경험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건물의 바로 뒤 청사에 있던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3·15 부정선거 총지휘자였던 자유당 정권 최인규 내무장관의 득의만면한 모습을 보면서 저 꼴이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4·19이후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되자 역사의 엄정성과 정직성 같은 것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3선 개헌 같은 것을 하는 정권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또 3선 개헌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군사독재정권의 반역사성이 한층 더 짙어져 가는구나, 결코 오래 가지 못하리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3선 개헌으로 연장된 박 정권이 바로 '유신'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는 군사독재정권이 오래 가겠구나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반 '유신'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희생을

치러야 '유신' 독재정권이 끝날지, 스페인 프랑코의 경우가 연상되면서 혹시 개인 박정희의 자연수명과 '유신' 독재 기간이 맞물려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신' 이 곧 박정희 독재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라 자신 있게 전망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겠다.

박정희 정권 출범 초부터 그러니까 공화당이 사전 조직될 때부터 대학교수와 언론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그 반역사적 정권에 동원되었다. 권력의 핵심이야 군인들이었지만 독재정권이 써먹기에는 기존의 정치인보다 '순진한' 대학교수와 현실감 있고 행동성이 기민한 언론인들이 훨씬 편리했는지도 모른다. 언론인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50대, 60대의 평기자가 거의 없는데 그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언론인이 40대쯤 되면 대거 정치계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수도 군사독재정권의 여러 부분에 쓰였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때라 특히 경제학 교수들이 경제계획사업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거나 경제관료로 직접 등용되었다. 심지어 한 대학의 경제학 교수팀 중심으로 하나의 파벌을 이루어 한때의 경제정책을 도맡기도 했고, 이른바 참여교수의 수가 급격히 늘어가면서 어떤 형태로건 참여하지 못하면 무능교수인 것처럼 간주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겉으로 드러난 참여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중앙정보부의 판단관인가 하는 자리를 가진 교수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교수가 판단관이라더라 혹은 아니라더라 등의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니 자연 교수휴게실에서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교수들이 쓴 글이 그들에 의해 나쁘게 판단됨으로써 잡혀 가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까지 되었다.

전두환 정권 때의 일이지만 남영동의 치안국 대공수사본부인가 하는 곳에 잡혀 갔을 때, 내가 쓴 책과 글들을 누구인지 모르지만 판단관인가 하는 교수가 읽고 밑줄 쳐서 불온한 부분이라 지적한 것과 그가 쓴 판단서인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조사관들조차도 좀 지나치다 말할 만큼 철저한 매카시즘적 '판단'을 보고 아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의 민주화과정이 김영삼 정권의 합당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군사정권을 뒤엎고 민주정권이 성립됨으로써 좀 더 개혁적이고 청산적이었다면, '유신' 시절과 그 후의 군사독재 시절을 통해 군사정권에 협조했던 지식인들의 반역사적 행위가 더 철저히 밝혀졌을 것이다.

'유신'과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새로 교수가 되는 사람들은 정신문화연구원—우리는 그 곳을 정신병원이라 불렀다—에 가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했고 기성교수들도 새마을연수원인가 하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아야 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세뇌됨으로써 군사독재정권에 아부하는 글을 쓰는 교수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어느 소설가 교수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을 지탄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소설을 써서 치부와 출세를 꾀하는 타락한 지식인이 되기도 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협조, 아부하는 교수들이 노렸던 것은 '유신' 체제의 산물인 유정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을 발표할 때가 되면 그 자리를 희망하는 교수들이 전화기 앞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 교수휴게실의 화제가 되는 세상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목숨을 걸고 반 '유신'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 교수들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애걸하는 상황이었으니, 우리 근·현대사 이후 지식인들을 가장 타락시킨 것이 박정희 정권과 그 후속 군사독재정권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신' 시대의 지식인들이 모두 이렇게 산 것은 물론 아니다.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했다가 교수자리에서 쫓겨나는 정부가 말하던 '정치교수' 즉 '해직교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등에서 많은 기자들이 독재정권에 저항하다가 쫓겨났고,

'유신' 반대운동에 나선 학생들을 변호하다가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변론하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인권변호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사적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선 지식인들은 대개 대학교수 · 언론인 · 문인 · 변호사 · 의사들이었다. 30년간의 군사독재 시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핵심도—의사들이 조금 소극적이고 또 늦게 참여하기는 했지만—대개 이들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10 · 26 박정희 암살사건이 일어나고 '유신' 정권이 무너지자 세상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다. 특히 대학 사회는 반 '유신' 운동으로 학교에서 쫓겨났거나 감옥에 갔던 학생들이 모두 돌아왔고, 이들에 의해 독재권력에 협조했던 어용교수 퇴출운동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어용으로 지목된 교수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들이 썼던 글과 독재정권에 협조한 실적들을 낱낱이 조사해서 열거했다. 제자들로부터 어용교수로 지목된 동료교수들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고 또 학교 측의 부탁도 있어서 해직되었다가 복직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믿음을 사고 있는 일부 교수들이 학생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어용교수로 지목되었다가 동료교수들의 학생 설득 후 다행히 발표명단에서 제외된 교수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제외되지 않고 그냥 어용교수로 발표된 교수들의 원망만을 사게 되었다. 학생들을 설득하러 나섰던 교수들은 어용교수로 발표된 동료교수들에 대해 무어라 변명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박정희 '유신' 정권이 기승을 부릴 때, 해직되었거나 구속된 교수들의 복직과 석방을 위한 서명을 받은 일이 있다. 1천 명 가까운 교수가 있는 대학인데도 겨우 5명인가 밖에 서명을 못 받았었는데,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후 이른바 '서울의 봄' 을 맞아 학원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을 때는 교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와서 서명하는 교수들이 많았다. 지식인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여기고 넘기기에는 아무래도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다가 '서울의 봄' 은 가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상황은 역전되었다. 어용교수들은 다시 안전지대에 들게 되었고 반대로 복직교수와 또 다른 군사정권 반대교수들이 다시 해직되게 되었다. 박정희 '유신' 정권 때의 '해직교수' 보다 전두환 정권 때의 '해직교수' 가 수적으로 더 많아졌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 나라의 대학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우리 대학만이 가진 불행한 역사였다고 할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도의 문화수준을 가진 민족사회가 '유신' 체제 붕괴 후 바로 민주주의 시대로 가지 못하고 다시 10년이나 후속 군사독재 시대를 겪어야 했다는 점과, 따라서 해방된 20세기 후반기를 통해 30년간이나 군사독재정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그 군사독재정권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개혁적이지도 또 청산적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80년대를 통해 군사독재체제에 저항해 온 민주세력의 일부가 바로 그 군사독재세력과 합당이란 것을 통해 야합함으로써 군사독재 시대 후 첫 민간정권이 성립되었으니 정말 불행한 일이었다.

군사독재 시대의 청산과정 즉 민주화과정이 반군사독재투쟁,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치열했던 반 '유신' 운동이 하루아침에 그 뜻을 잃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군사독재정권을 뒷받침했던, 심지어는 '유신' 독재정권을 지탱했던 반민주 정치세력이 문민정권 아래에서도 청산되지 못하고 이른바 보수세력으로 탈바꿈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반역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